

명성만큼 위대한가... 걸작 20편 다시 보기

당신이 알지 못했던

걸작의 비밀

존 B. 니키 지음



대개의 걸작 또는 명작이라고 하면 화가의 천재성과 독창성이 녹아들어 높은 완성도를 갖춘 작품으로 생각된다. 과연 그럴

까? 그리고 걸작의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걸까? 그리고 걸작으로 알려지면 그 명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

여행가이드북이나 박물관 책자에는 이른바 '꼭 봐야 할 걸작(명작)'으로 소개되는 미술작품들이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한번쯤 "도대체 이 작품은 왜 그렇게 유명할까"라고 궁금증을 가졌을 법하다.

예술작품의 위대함이 그 명성과 어떻게 다른지를 조명한 책이 나왔다. 이탈리아 미술 전문가 존 B. 니키는 저서 '당신이 알지 못했던 걸작의 비밀'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풀어놓는다. 저자는 걸작은 그림의 질과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갑자기 명성을 잃거나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본다. 작품 자체보다는 외적 요인이 명성에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여러 이유가 겹치기도 하는데 독특한 생애, 유명인들의 코멘트, 진위 논쟁, 도난, 경매가 등의 비하인드 스토리, 스캔들 등 여러 이유가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고대 이집트의 대 �핑크스를



예술작품의 명성에는 작품 자체보다는 작가의 독특한 생애, 진위 논쟁, 도난 등 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시작으로, 파르테네 신전의 조각들, 라파엘로의 '시스티나 성모',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피카소의 '게르니카'까지 20편을 다룬다.

독자들은 단순한 미술품의 감상 수준에서는 만날 수 없는 폭넓은 질문과 확장성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1798년 나폴레옹은 이집트 침공 때 167명이나 되는 화가, 건축가, 동식물학자, 고고학자 등을 데려갔다. 그 이유는?

이렇듯 저자는 독자들이 알고 있는 작품에 대한 해설보다는 정치, 사회, 역사

적 배경이나 그것들의 관련성, 대중의 취향과 속성 등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책이 작품해설서나 미술사 책이 아니라 예술철학, 미술사회학 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나리자”는 항상 두 명의 경비가 지키고 있다. 그리고 사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명성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말쑥꾼들, 이를테면 소매치기 같은 이들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다.”

저자는 '모나리자'는 여러 번 공격을 당해 유명세를 치렀다고 본다. 1956년에는 전시 중이던 그림에 누군가 산성물질

을 뿌렸고, 그해 말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돌을 던져 왼쪽 팔꿈치 부분을 훼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왜 이 책을 읽어야 할까? 뉴욕대 미술사학과장인 데니스 제로니무스는 이렇게 추천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업화의 시대, 점점 더 유명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문화의 시대에, 어떤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작품은 그러지 못하는, 독특하면서도 종종 이해하기 힘든 현상에 대한 신선한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울댓북스·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인생을 바꾸는 결혼 수업=결혼이 인생의 필수 과정이 아닌 선택이 된 지금, 그럼에도 결혼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결혼 생활의 질'이 곧 '삶의 질'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혼을 위한 마음가짐 바로잡기, 결혼할 남자를 선택하는 방법,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결혼의 조건과 기준 등을 44가지로 정리했다. 결혼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과 가치를 찾기 위한 방향키가 될 것이다. 〈해냄·1만3800원〉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어떻게 하면 주식시장과 투자를 바라보는 안목과 시선을 키워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즉 '돈 버는 투자자는 무엇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이 책에 답이 있다. 워런 버핏 투자법에 정통하며 대중적 투자 지침서를 잘 쓰는 것으로 정평이 난 저자는 세계적인 투자 대가를 대부분이 독서광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책은 워런 버핏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조인자인 찰리 멩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부크온·1만9400원〉

▲빅뱅에서 인류의 미래까지 빅히스토리=인간은 어떻게 태어나 어디로 향해가는가? 멀게는 원시시대 불의 발견에서부터 가깝게는 인터넷까지 인류의 역사를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다. 과학, 역사,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학문을 통합해 때로는 거시적으로, 때로는 미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풀어냈다. 분야 간의 경계를 허물고 역사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이 책에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뛰어난' 지점을 찾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다. 〈생각정거장·1만8000원〉

▲도스토옙스키의 메타지식=도스토옙스키 총서 1권. 그의 4대 장편소설의 철학적 서론으로 평가되는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대한 해석서이다. 지식에 대한 지식을 통해 기존의 지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글쓰기의 새로운 모험을 시도한 도스토옙스키의 창작세계를 밝히는 동시에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 담론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19세기 최고의 지성인 도스토옙스키의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애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다. 〈우물이 있는 집·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내가 할아버지를 유괴했어요=저자 안드레아스 슈타인회벨은 독일을 대표하는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로서 2013년에는 작품 전체를 기념하는 독일 청소년 문학상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그림 작가 넬레 팍타크와 함께 아름다운 조순 이야기를 동화로 펴냈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와, 그런 할아버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손자의 이야기로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과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담았다. 〈아름다운 사람들·1만1000원〉

▲둥글둥글 둥근 달이 좋아요=우리가 사뭇 지나치기 쉬웠던 세상 모든 둥근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둥근 것들에 대한 서정적이고도 매력 넘치는 풍경을 가득 담은 그림책. 뉴베리 상, 칼데콧 아너 상 수상 작가이자 어린이들을 위한 시를 쓰는 이름난 자연 시인 조이스 시드먼, 뉴욕 타임스 최고의 그림책 상을 수상한 유테는 작가가 함께 그려낸 둥근 것들에 대한 매력



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미디어창비·1만2000원〉

▲멧돼지를 통째로 삼키는 법=세계 곳곳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오고 있는 동물들이 오랜 세월 쌓아 온 그들의 생활 비법을 공개한다. '단계별 설명'이라는 형식을 통해 동물들의 독특한 행동을 자세하면서도 알기 쉽게 보여 주고, 독자들이 동물의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천천히 맞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신의 신체적 특징과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며 터득하고 간직해 온 동물들의 생활 비법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 〈시공주니어·1만2000원〉

콜드 블루·편의점 도시락... '요즘 음식' 사용 설명서

정재훈의 식탁

정재훈 지음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갖고 있다. 특히 ‘인기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일방적인 추종은 사회현상이 된 지 오래다.

그렇다 보니 음식과 관련한 온갖 정황들이 넘쳐나고 '식탁 위 논쟁'도 끊이지 않는다.

TV 프로그램 '여유만만', '황금알', '아침마당' 등에 출연해 거침없는 입담

으로 음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약사이자 푸드라이터 정재훈이 펴낸 '정재훈의 '식탁(食卓)'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요즘 음식' 24가지에 대한 논쟁 보고서다. 저자는 대상이 되는 음식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해 음식의 과학, 역사, 문화에 대해 방대한 조사를 한 후 글을 써내려갔다.

저자는 “모든 게 취향의 문제라는 말로 논쟁을 마무리할 수 없다. 음식 담론에서도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설량은 달기만 한 것인지, 라면은 주눅들며 마

땅한 음식인지, 탄산수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등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다.

4장으로 구성된 책은 일종의 '음식 사용 설명서'다. 1장 '재료에 관하여'에서는 설탕, 식용유, 밀가루, 버터, 달걀, 두부, 봄나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2장 '음료에 관하여'에서는 요쿠르트, 주스, 탄산수, 콜드블루, 우유에 대해 다루며 3장 '가공식품에 관하여'에서는 즉석밥, 라면, 조리식품, 편의점 도시락, 마지락 4장 '간식에 대하여'에서는 허니버터, 아묵, 과자, 대왕카스테라, 견과 등에 대해 다룬다.

〈컬처 그라피·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여름부터 각광 받기 시작한 콜드 블루 커피는 이제 대체가 됐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제품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콜드 블루는 '더 좋은 커피'인 걸까. 또 흡소핑 등에서 볼티 나게 팔리는 상품종 하나인 견과류, 과연 매일 먹어야 하는 걸까.

신천지 베드로지파 급성장, 이유는 '진리 말씀'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지난해 6327명, 올해 상반기만 2625명 수료

신천지에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수교회, 총회장 이만희) 베드로지파가 지난해 단일지파로는 최대인 6327명의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수료생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만 2625명이 수료해 교계에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 해당하는 신천지에수교회 베드로지파는 매년 성경 말씀의 참뜻을 알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성도수가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에수교회 베드로지파에 따르면, 시온기독교선교센터 수료생은 지난 2012년 2623명, 2013년 4147명, 2014년 4295명, 2015~2016년 6327명, 올해 상반기 2625명이며 하반기에도 수료식을 예정하고 있어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신천지에수교회에 입교하기 위한 관문으로, 기독교의 경서인 성경의 참뜻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이다. 특히 수료생들이 신천지에수교회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배운 성경 말씀에 대해 시험을 보고 90점 이상으로 합격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다.

신천지에수교회 베드로지파는 양적 성장세와 발맞춰 성도들 신앙의 질적 완성도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수료생 뿐 아니라 전 성도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베드로지파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05기 2반 수료식에 참석한 이만희 총회장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지재성 베드로지파장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꽃다발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수료식에서 2625명의 수료생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 성경 6천년 가운데 있어진 하나님의 사경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성경의 옛것과 새것을 내어 오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처럼 성경 안에서 자유로이 가져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지 알아서 성경이 말한 모든 것에 주인과 실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실체로서 완벽한 깨달음을 가져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재성 베드로지파장은 해마다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참 신앙을 하기 위한 성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포함 되었던 요한계시록의 참뜻이 풀이되는 곳은

없다. 오직 신천지에수교회에만 계시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번엔 수료한 한 수료생은 "여러 교단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배워왔지만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성경 기준으로 명쾌하게 알려주는 곳은 없었다"며 "비로소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됐고, 참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